

1920년대 초 공산주의 그룹의 맑스주의 수용과 ‘유물사관요령기’

박 종 린*

머리말

1. 공산주의 그룹의 조직과 ‘신사상’의 선전
 2. ‘유물사관요령기’의 번역과 맑스주의 수용
 - 1) ‘유물사관요령기’와 일역본
 - 2) ‘유물사관요령기’의 번역과 ‘사회주의 필연성’의 강조
- 맺음말

머리말

식민지로 전락한 이후 조선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의 수탈은 점차 강화되었고 이로 인해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은 더욱 심화되었다. 여기에 러시아 혁명을 통해 지구상에 최초로 사회주의체제가 ‘가능태’가 아닌 ‘현실태’로 존재하게 되고, 삼일운동을 통해 부르주아 민족주의세력의 이념적, 실천적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

대표논저 : 2007 「1920년대 사회주의사상의 수용과 一月會」 『한국근현대사연구』 40, 한국근현대사학회 ; 2007 「日帝下 社會主義思想의 受容에 關한 研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03 「1920년대 전반기 사회주의사상의 수용과 물산장려논쟁」 『역사와 현실』 47, 한국역사연구회

한계가 가지되자 조선의 청년·지식인들은 민족해방운동의 새로운 지도 이념으로 사회주의사상을 급속하게 수용하였다. 이러한 사회주의사상의 수용은 필연적으로 일본제국주의 및 부르주아 민족주의세력과의 투쟁을 동반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사회주의운동은 민족해방운동의 중심적 경향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사회주의운동이 성장함에 따라 과학적 이론에 대한 요구가 점점증하고, 이에 따라 점차 사회주의사상 가운데 맑스주의를 현실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한국근현대사에서 1920년대는 사회주의사상의 수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사상의 수용기'로 규정할 수 있다. 다양한 사회주의사상의 제 조류가 소개되고 수용된다는 점, 민족해방운동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사회주의사상의 주류가 맑스주의로 급속하게 전일화 된다는 점, 그리고 식민지적 특성으로 인해 사회주의사상이 하나의 체계적인 사상이나 이론으로 수용되기 보다는 '해방의 이데올로기'로 수용된 면이 강하다는 점 등을 그 시기적 특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사상의 수용 방식과 전개와 관련하여 몇 개의 단계가 구분되는 시기이기도 하다.¹⁾ 그 가운데 본고의 검토 시기인 1920년대 초는 다양한 사회주의사상이 수용되는 가운데 민족해방운동과 관련하여 맑스주의가 급격히 주류적인 위치로 자리하는 단계이다.

1980년대 이후 사회주의운동에 대한 연구가 일정하게 축적됨에 따라 1990년대 이후 사회주의 연구의 중심 주제는 조선공산당과 조선공산당 창

1) 1910년대 중반부터 1920년대 중반까지의 시기는 사회주의사상의 수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특징과 관련하여 ① 다양한 사회주의사상이 수용되는 가운데 민족해방운동과 관련하여 맑스주의가 급속히 주류적인 위치로 자리하는 단계 ② 다양한 사회주의사상이 급속히 맑스주의로 전일화되면서 공산주의 그룹들 사이에 맑스주의 인식의 편차를 둘러싸고 계속적인 논쟁이 전개되는 단계 ③ 맑스주의 인식이 심화되면서 레닌주의를 수용하는 단계 등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박종린, 2007 『日帝下 社會主義思想의 受容에 關한 研究』,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참조.

당 이전의 '공산주의 그룹'²⁾들의 활동으로 급속하게 확대되었다. 러시아의 구 코민테른 문서보관소(현 러시아국립사회정치사 문서보관소)에 소장되어 있던 운동 주제 측의 자료를 이용하여 1920년대에 활동한 상해파·이르쿠츠크파·서울파·북성회파·화요파·엠엘파·서상파 등의 공산주의 그룹과 고려공산당·고려공산동맹·조선공산당 등의 전위당에 대한 활동과 그들의 운동론을 고찰한 연구 성과가 속속 제출되었다.³⁾ 이러한 연구를 통해 이 시기에 전개된 사회주의운동의 전모는 상당 부분 밝혀졌다. 또한 그 과정에서 사회주의운동과 관련된 사회주의자들의 운동론, 즉 통일전선론이나 국가건설론 등에 대한 천착도 이루어 졌다.⁴⁾

그러나 사회주의운동의 이념적 기반인 사회주의사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모습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즉 사회주의자들의 '움직임'에 비해 사회주의자들이 인식하고 있던 맑스주의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사회주의 관련 연구가 기본적으로 이데올로기적 제약과 관련 자료들의 절대적인 부족이라는 이중적인 제약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사회주의 관련 연구의 대부분이 사회주의사상의 문제보다는 사회주의운동의 문제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2) 공산주의 그룹이란 일정한 조직적·정치적 공통성에 입각해서 형성된 비밀결사로, 자체의 중앙기관과 세포단체를 갖고 있으며 독자의 조직적 규율을 갖춘 하나의 조직체로 규정된다(임경석, 1998 「총론 : 공산주의 운동사 연구의 의의와 과제」 『역사와 현실』 28, 23쪽).

3) 최근 저작의 형태로 출판되고 있는 이 시기의 대표적인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① 임경석, 2003 『한국 사회주의의 기원』, 역사비평사 ② 이현주, 2003 『한국 사회주의세력의 형성 : 1919~1923』, 일조각 ③ 전명혁, 2006 『1920년대 한국사회주의운동연구』, 선인 ④ 朴哲河, 2003 『1920年代 社會主義 思想團體 研究』, 崇實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4) 대표적인 연구로는 ① 임경석, 1992 「일제하 공산주의자들의 국가건설론」 『大東文化研究』 27 ② 이애숙, 1998 「1922~1924년 국내의 민족統一 戰線운동」 『역사와 현실』 28 참조.

이에 본고는 1920년대 초 조선에 수용된 사회주의사상 - 특히 맑스주의 - 가 언제 누구에 의해 왜 수용되었는가 하는 문제와 그 수용 과정에서 무엇이 강조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사회주의사상의 수용 경로와 주체, 그리고 수용 이유에 대한 검토인 것이다. 이를 위해 삼일운동 이후 출현한 공산주의 그룹과 그들의 맑스주의에 대한 선전활동을 검토하고, 1921년 식민지 조선에서 공개적인 출판물 형태로 처음 발간된 맑스주의 원전 번역물인 『정치경제학비판에 대하여』 서문의 ‘유물사관요령기(唯物史觀要領記)’에 대한 번역 상황과 그 특징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이 시기 공산주의 그룹의 맑스주의 수용 방식과 한국 사회주의 사상 수용사에서 ‘유물사관요령기’의 번역이 갖는 의의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1. 공산주의 그룹의 조직과 ‘신사상’의 선전

삼일운동의 소용돌이가 점차 가라앉고 일제의 ‘문화정치’로 인해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식민지 조선에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가 허용되었다. 이른바 ‘열린 공간’이 생기면서 조선의 사상계와 대중운동은 이전과는 상이한 지형으로 재편되기 시작하였다. 1920년부터 조선노동공제회나 조선청년회 연합회와 같은 전국적 규모의 대중운동 단체들이 속속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대중조직의 확대와 함께 기관지인 『공제(共濟)』와 『아성(我聲)』의 발행을 통해 대중에게 ‘신사상’을 선전하는데 주력하였다.⁵⁾

이들 대중운동 단체의 이면에는 몇 개의 공산주의 그룹들이 비밀결사의

5) 조선노동공제회에 대해서는 朴愛琳, 1992 「朝鮮勞動共濟會의 活動과 理念」, 延世大學校 史學科 碩士學位論文 참조. 조선청년회연합회에 대해서는 安建鎬, 1995 「朝鮮青年會聯合會의 組織과 活動」 『韓國史研究』 88 참조.

형태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 규모와 운동경험의 상이성으로 인해 분산적으로 존재하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삼일운동 이후부터 1921년까지의 기간에 서울에는 ‘서울공산단체’, ‘조선공산당’, 사회혁명당, ‘마르크스주의 크루조크(小組)’ 등 4개 정도의 주요한 공산주의 그룹의 존재가 확인된다. 이들은 이 시기 사회주의사상, 특히 맑스주의의 수용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조직된 순서에 따라 사회주의사상의 수용과 관련된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자.

삼일운동 이후 가장 먼저 조직된 것으로 확인되는 공산주의 그룹은 ‘서울공산단체’이다. 이 단체는 1919년 10월 20여명의 구성원으로 조직된 비밀결사였는데, 정식 명칭은 알 수 없다. 산하의 여러 부서 가운데 출판부를 두고, 조선노동공제회의 편집부를 통해 『공제』의 발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⁶⁾ 1921년 5월에는 이르쿠츠크에서 개최된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 창립대회에 서천민(徐天民) 등 2명을 대표로 파견하였고, 이후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의 국내 뷰로로 활동하게 된다.

‘조선공산당’은 1920년 3월 15일 서울에서 15명의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조직된 비밀결사 조직이다. 그러나 조직 후 일본경찰의 감시로 인해 일시 휴지기에 들어갔다가 1921년 5월 1일 메이데이를 기념하여 활동을 재개하였다.⁷⁾ 이들은 합법기관으로 무산자동맹회를 조직하였는데, 이를 통해 노동계급의 단결과 계급적 자각을 위한 활동에 주력하였다. ‘조선공산당’을 주도한 이들은 신백우(申伯雨), 원우관(元友觀), 김한(金翰), 윤덕병(尹德炳), 정재달(鄭在達), 김사국(金思國), 이영(李英), 김달현(金達鉉) 등이었다.⁸⁾

6) 임경석, 2003 『한국 사회주의의 기원』, 역사비평사, 117~119쪽 참조.

7) Доклад делегата ТЕНУ, «История и деятельность ней тральной КоркомпарТии» (대표자 전우의 보고, 「중립 조선공산당의 역사와 활동」), 1쪽, #495-135-64

8) Доклад делегата ТЕНУ, «История и деятельность ней тральной КоркомпарТии» (대표자 전우의 보고, 「중립 조선공산당의 역사와 활동」), 3쪽,

‘조선공산당’이 조직된 후 구성원들이 주력한 활동의 하나가 출판활동을 통한 ‘신사상의 선전’이었다. ‘조선공산당’의 출판활동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하나는 『공제』나 『아성』과 같은 합법적인 매체에 자신들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 시기 합법적인 매체를 통해 가장 활발하게 자신의 견해를 밝힌 이는 신백우였다. 그는 주로 『공제』를 통해 현실운동론에 대한 글이나 맑스주의와 크로포트킨의 학설 등 ‘신사상’을 선전하는데 주력하였다.⁹⁾

또 하나는 비밀리에 격문이나 팜플렛을 발행하여 배포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되는 것은 1921년 9월 국내에서는 최초로 『공산당선언』을 번역하여 발행한 것이다. 일제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 비밀출판물의 형태로 85부만 발행하였지만,¹⁰⁾ 맑스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전 가운데 하나인 『공산당선언』을 번역하여 출판하였다는 점에서 맑스주의를 수용한 공산주의 그룹의 지향성을 보여 주는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¹¹⁾

#495-135-64 ; 「서울青年會에 對한 報告」, 2쪽, #495-135-198

9) 申伯雨의 주요한 글은 다음과 같다. ① 1920.10 「小作人組合論」 『共濟』 2 ② 1921.4 「唯物史觀概要」 『共濟』 7 ③ 1921.4 「蜂과 蜂의 相互扶助」 『共濟』 7 ④ 1921.6 「階級社會의 史的考察」 『共濟』 8

10) 「ИЗДАТЕЛЬСК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ЧО СЕН КОНГ САН ДАНГ/Корейской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й Партии/」(조선공산당의 출판활동), 1쪽, #495-135-70

11) 1921년 9월 ‘조선공산당’에 의해 번역된 『공산당선언』은 幸德秋水와 堺利彦이 1904년 11월 『平民新聞』 1주년 기념호에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번역하여 게재했던 일역본을 저본으로 번역된 듯하다. 『공산당선언』은 같은 해 상하이와 이르쿠츠크에서도 발행되었다. 상하이에서는 韓國共產黨의 呂運亨이 영역본을 저본으로 번역하여 출간하였고, 이르쿠츠크에서는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이 로어본을 번역하여 발행하였다. 『공산당선언』의 한국어 번역이 최초로 공개 출판된 것은 1925년 3월 一月會 기관지 『思想運動』 1권 1호를 통해서였다. 그러나 이 글은 완역이 아니라 제 3장인 「社會主義와 共產主義 文獻」만을 「社會主義者의 社會主義

1920년 5월 조선노동공제회 안에 7명으로 구성된 맑스주의 씨클인 ‘마르크스주의 크루조크(소조)’가 조직되었다. 구성원은 김약수(金若水), 정태신(鄭泰信), 정운해(鄭雲海) 등이었다.¹²⁾ 이들은 활동의 중심을 맑스주의의 연구와 선전에 두었고, 실제로 조선노동공제회의 주요 임원이자 『공제』의 편집위원으로 『공제』 1호와 2호의 편집과 발행을 주도하였다.¹³⁾ 이들은 『공제』를 통해 주로 노동문제에 대한 글이나 서구의 노동운동사에 대한 글을 소개하였다.¹⁴⁾

1921년 봄 본거지를 일본으로 이동하였는데, 이는 맑스주의 연구와 출판 활동에 관한 환경이 조선보다 일본이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이들은 도쿄에서 맑스주의에 대한 선전과 조직 활동을 전개하였고, 그 해 5월 7일 ‘재일본조선인공산단체’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였다.¹⁵⁾ 그리고 조선인 노동자와 청년들에게 맑스주의를 보급할 목적으로 대중시보사(大衆時報社)를 조직하고 기관지 『대중시보(大衆時報)』를 발행하였다.¹⁶⁾

評：社會主義及共產主義文書라는 제목으로 번역한 것이었다. 이 번역은 一月會의 思想運動社 勸讀部 책임자였던 宋彥珊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朴鍾麟, 2007 「1920년대 사회주의사상의 수용과 一月會」 『한국근현대사연구』 40 참조. 완역된 형태의 한국어 번역본이 최초로 공개 출간된 것은 해방 직후인 1945년 8월이다. 勞動戰線 편집부의 번역으로 발행된 勞動戰線社版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勞動戰線社版은 독어 원문을 번역한 것이 아니고, 영역본을 저본으로 일역본을 참조한 중역본이었다. 동아시아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의 『공산당선언』의 번역사에 대해서는 별고에서 다루고자 한다.

12) K.H.黨(北風會內 共產主義 秘密結社) 代表 辛鐵·金泳雨, 1926.2.11 「國際共產黨 執行委員會貴中」, 2쪽

13) 1921.4 「編輯室에서」 『共濟』 7, 93쪽

14) ‘마르크스주의 크루조크’ 구성원들의 주요한 글은 다음과 같다. ① 金若水 - 1920.10 「前後 世界大勢와 朝鮮勞動問題」 『共濟』 2 ② 鄭泰信 - 1920.9-1920.10 「歐米勞動運動史」 『共濟』 1:2 ③ 南相協 - 1920.10 「勞動問題 尙早論者에게」 『共濟』 2 ④ 趙誠惇 - 1920.9 「勞動萬能論」 『共濟』 1

15) 박철하, 1998 「북풍과 공산주의 그룹의 형성」 『역사와 현실』 28, 66쪽

사회혁명당(社會革命黨)은 1920년 6월 서울에서 비밀리에 개최된 신아동맹당(新亞同盟黨) 제 5차 대회를 통해 명칭을 변경하면서 조직되었다. 대회에서는 ‘계급타파’와 ‘사유제도타파’ 그리고 ‘무산계급 전제(專制)정치’를 요지로 하는 「선언서」가 발표되었다.¹⁷⁾ 이들은 이러한 선언서의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먼저 조선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구축(驅逐)해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부르주아 민족운동자들과 함께 손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⁸⁾

사회혁명당의 조직은 일본에서 활동하던 신아동맹당의 중심을 국내로 이전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했다는 점과 종래 사회주의자와 비사회주의자로 구성되었던 신아동맹당을 “사회주의자들만의 조직”¹⁹⁾으로 변경시켰다는 점에서 신아동맹당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구성원으로는 ‘김철수그룹’²⁰⁾의 김철수(金鋌洙)·장덕수(張德洙)와 김명식(金明植), 홍도(洪濤), 최팔용(崔八鏞), 이봉수(李鳳洙), 주종건(朱鍾健), 이증림(李增林), 도용호(都容浩), 김종철(金鍾喆), 최혁(崔赫), 엄주천(嚴柱天), 김일수(金一洙), 도관호(都寬浩), 유진희(兪鎭熙), 윤자영(尹滋瑛), 정노식(鄭魯湜) 등이 참여하였다.²¹⁾ 이들은 대부분 일본유학생 출신이거나

16) ‘마르크스주의 크루즈크’가 대중시보사와 『대중시보』를 매개로 전개한 일본에서의 활동과 맑스주의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고자 한다.

17) 1921.12.24 「두 공산당의 연합」 『붉은 군사』 2, 고려혁명군정처부, 5면

1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1999 『遲耘 金鋌洙』,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8쪽

1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1999 위의 책, 45쪽

20) ‘김철수그룹’에 대해서는 박중린, 2007 『日帝下 社會主義思想의 受容에 關한 研究』,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장 1절 참조.

2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1999 앞의 책, 8·45·59·197·210쪽. 金鋌洙의 회고를 취합하여 정리하였는데, 회고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 삼일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중등 이상의 근대교육을 이수한 신지식층이었다.²²⁾

사회혁명당이 조직된 후 구성원들이 주력한 활동의 하나가 ‘신사상의 선전’이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이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독서와 토론을 통해 새로운 이론과 현실문제에 대한 견해를 나누었다. 아래 김철수의 회고는 사회혁명당의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우리가 ‘사회혁명당’을 만들었던 말이여. 만들어 가지고 그 때에 별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회주의운동을 하자!’. ‘헌디 첫 번에 독서회 모양으루 책이 생기면 서로 나누어 보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모아서 그렇게 하자!’²³⁾

처음에 20년에, 20년 가을에, 우리가 사회혁명당했네. 우리헌 것이. 이것이 우리나라에는 처음 사회단체여. 왜 이것이 그 때, 사회혁명당이라고 한 것이 마치 독서회 모양으로 서로 책을 나눠서 보고 토론도 하고, 시국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렇게 일어난 것.²⁴⁾

이러한 독서와 토론을 기반으로 사회혁명당의 몇몇 이론가들은 선전활동의 일환으로 맑스주의에 대한 이론이나 현실문제와 관련된 견해를 자신들이 활동하고 있던 기관의 기관지인 『공제』와 『이성』을 통해 발표하였다. 이 시기 활발하게 자신의 견해를 밝힌 대표적인 이는 유진희와 윤자영 그리고 김명식 등이었다.²⁵⁾ 이들은 주로 『공제』가 표방했던 ‘노동문제 연구’

22) 임경석, 2003 『한국 사회주의의 기원』, 역사비평사, 125쪽

2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1999 『運轉 金鐵洙』,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45쪽

2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1999 위의 책, 305쪽

25) 이들이 이 시기 『共濟』와 『我聲』에 발표한 노동문제와 ‘신사상’에 관련된 주요한 글은 다음과 같다. ① 俞鎭熙 ㊦ 無我生, 1920.9 「勞動者の 文明은 如斯하다」 『共濟』 1 ㊦ 1920.10 「勞動運動의 社會主義的 考察」 『共濟』 2 ㊦ Y生, 1921.4 「勞動

와 ‘신사상 선전’,²⁶⁾ 그리고 『아성』이 표방했던 ‘시대사상의 선구’²⁷⁾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노동문제에 대한 글이나 맑스주의(유물사관요령기 등)와 크로포트킨의 학설(상호부조론 등) 등 ‘신사상’의 소개와 선전에 주력하였다.

사회혁명당은 1921년 5월 상해에서 개최된 상해파 고려공산당 창립대회에 김철수, 주종건, 이봉수, 홍도 등 8명의 대표단을 파견하였다.²⁸⁾ 사회혁명당 구성원들은 대부분 상해파 고려공산당의 국내 간부에 임명되었다. 특히 윤자영과 유진희 그리고 김명식과 주종건 등 사회혁명당 출신의 이론가들은 기관지를 주관하게 되었다.²⁹⁾ 이제 사회혁명당은 상해파 고려공산당의 국내 조직으로 위상을 전환하게 된 것이다. 드디어 1920년대 초반 식민지 조선 사회주의운동의 우이(牛耳)를 잡았던 국내 상해파가 탄생한 것이었다.

價値說研究 『共濟』 7 ㉠ 크로포트킨, 1921.4-1921.6 「青年에게 訴함, 無我生譯, 『共濟』 7-8 ㉡ 無我生, 1921.6 「勞動問題의 要諦 『共濟』 8 ㉢ 尹滋瑛 ㉣ 1921.3 「唯物史觀要領記 『我聲』 1 ㉤ 1921.7-1921.9 「相互扶助論 『我聲』 3-4 ㉥ 金明植 ㉦ 1920.9 「勞動問題는 社會의 根本問題이라 『共濟』 1 ㉧ 1921.9 「現代思想의 研究 『我聲』 4

26) 『共濟』는 7호부터 계속 표지에 이 슬로건을 제시하고 있다(1921.4 『共濟』 7, 표지).

27) 『我聲』은 2호부터 계속 표지에 ‘朝鮮青年의 元氣’라는 슬로건과 함께 이 슬로건을 제시하고 있다(1921.5 『我聲』 2, 표지).

2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1999 『遲軒 金鏊洙』,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9쪽

2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1999 위의 책, 10쪽. 국내 간부는 金明植, 尹滋瑛, 兪鎭熙, 鄭魯湜, 韓偉健, (兼)張德洙, 李鳳洙, 崔八鏞, 李增林 등 모두 9명이었다.

2. ‘유물사관요령기’의 번역과 맑스주의 수용

1) ‘유물사관요령기’와 일역본

1859년 발행된 『정치경제학비판을 위하여』는 맑스주의 정치경제학의 형성에 매우 중요한 한 단계를 이루는 저작이다. 즉 이 저작에서 맑스는 처음으로 상품, 화폐, 가치 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명했고, 이를 통해 자본주의적 착취에 대한 과학적 분석의 초석을 놓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저작이 출판될 때 맑스는 유물론적 역사 파악의 기본사상을 간결하고 체계적인 형태로 정리한 서문을 첨가하였다. 『정치경제학비판을 위하여』 서문에는 맑스 자신이 “내 연구의 길잡이가 되었던 일반적 결론³⁰⁾”이라고 언급한 15개 문장으로 이루어진 ‘유물사관요령기’가 포함되어 있다.

‘유물사관요령기’는 생산력과 생산관계, 토대와 상부구조, 존재와 의식, 경제적 사회구성체의 계기적 발전과 사회주의사회의 필연적 도래의 문제와 같은 맑스주의의 핵심적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물사관요령기’는 맑스주의 역사에서 그 자체로 독자적이며 과학적인 의의를 갖는 문건으로 평가된다.

‘유물사관요령기’의 이러한 위상으로 인해 각국어로 번역되어 맑스주의 수용 과정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동아시아에서 ‘유물사관요령기’가 처음으로 번역된 것은 1912년 일본이었다. 아래의 <표 1>은 식민지 조선에서 ‘유물사관요령기’가 번역된 1921년까지 일본에서 일역된 ‘유물사관요령기’ 일역본의 리스트이다.

30) 칼 맑스, 1992 『정치 경제학의 비판을 위하여』, 최인호 외 역,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2, 박종철출판사, 477쪽

<표 1> 1921년까지 일역된 ‘유물사관요령기’ 리스트³¹⁾

	출판시기	게재지	제목	번역자	비고
1	1912. 1.15	『國民雜誌』	唯物的歷史觀	堺利彦	
2	1912. 5	『賣文集』, 161~164쪽	唯物的歷史觀	堺利彦	1 전제
3	1913. 1	『社會主義倫理學』, 269~272쪽	唯物的歷史觀要領記	堺利彦	2 전제
4	1919. 1	『經濟論叢』8-1, 43~45쪽	生産政策としての社會主義	河上肇	
5	1919. 3	『社會問題研究』3, 20~22쪽	マルクスの社會主義の理論的體系	河上肇	4 일부 수정
6	1919. 4	『社會主義研究』1, 14~16쪽	唯物史觀概要	堺利彦	3 일부 수정
7	1920. 4	『近世經濟思想史論』, 岩波書店, 184~187쪽	唯物史觀	河上肇	5 전제
8	1921. 8	『唯物史觀研究』, 弘文堂, 6~9쪽	唯物史觀の公式 全文	河上肇	5 채수정

‘유물사관요령기’의 일역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인물은 일본의 사회주의자 사카이 도시히코(堺利彦: 1870~1933)와 가와카미 하지메(河上肇: 1879~1946)이다. 윤자영과 신백우의 번역문이 『아성』과 『공제』에 게재된 1921년 4월까지 일본에서 ‘유물사관요령기’에 대한 번역은 사카이와 가와카미 두 사람에게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표 1>에서 살펴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카이의 ‘유물사관요령기’ 초역은 대역사건으로 인해 사회주의운동이 탄압받던 ‘겨울의 시대’에 유물사관의 이해를 둘러싸고 아마지 아이잔(山路愛山: 1864~1917)과 논쟁을 벌이던 과정에서 이루어졌다.³²⁾ 즉 1912년 1월 15일 『국민잡지』 지상에 발표한 「유물적역사관」이라는 글의 일부로 ‘유물사관요령기’를 초역한 것이다. 사카이

31) 필자가 실물을 확인하면서 직접 작성하였다.

32) 川口武彦, 1983 『日本マルクス主義の源流; 堺利彦と山川均』, ありえす書房 참조.

는 그 글을 그 해 5월 간행한 자신의 저서 『매문집』에 전재하였다.³³⁾ 그리고 이어 1913년 카우츠키의 저서인 『윤리와 유물사관』을 『사회주의윤리학』이라는 제명으로 번역하면서 그 부록으로 ‘유물사관요령기’를 첨부하였다.³⁴⁾

이후 ‘겨울의 시대’가 끝나자 사카이는 1914년 4월 아마카와 히토시(山川 均: 1880~1958)와 함께 주도하던 잡지 『사회주의연구』 창간호에 종래의 번역문을 수정한 새로운 번역문을 게재하였다.³⁵⁾ 이 번역문에 대해 사카이는 자신의 종래 번역문과 1919년 발표된 가와카미의 번역문을 비교하여, 정확하고 명료하며 평이한 일역본을 게재한다고 밝히고 있다.³⁶⁾ 사카이의 이러한 몇 차례의 번역 시도는 모두 영역본을 저본으로 한 중역(重譯)이었다.

이에 비해 가와카미의 경우는 1919년 1월 『경제논총』에 ‘유물사관요령기의 초역을 게재하였다.’³⁷⁾ 그리고 그 해 3월 개역(改譯)을 개인잡지인 『사회문제연구』 3호에 게재하였는데,³⁸⁾ 그 글을 1920년 4월 간행한 자신의 저서 『근세경제사상사론』에 전재하였다.³⁹⁾ 그리고 1921년 8월 간행한 그의 저서 『유물사관연구』에 재수정된 번역문을 수록하였다.⁴⁰⁾ 그런데 가와카미

33) 堺利彦, 1912 『賣文集』, 丙午出版社

34) 사카이는 譯者序를 통해 『社會主義倫理學』의 원서에는 없던 ‘唯物史觀要領記’를 『附錄』으로 첨부하는 이유를 맑스의 유물사관에 입각하여 저술된 카우츠키의 저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물사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Karl Kautsky, 1913 『社會主義倫理學』, 堺利彦 譯, 丙午出版社, 『譯者の序』 3쪽).

35) 『社會主義研究』의 본문에는 번역자가 명기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1922년 7월 건설지동맹출판부에서 출간된 사카이의 저서 『社會主義學說の大要』에 수록된 ‘유물사관요령기’의 일역문과 대조해 보면 동일한 번역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번역자를 사카이로 추정하였다.

36) 1919.4 『唯物史觀概要』 『社會主義研究』 1, 16쪽

37) 河上肇, 1919.1 「生産政策としての 社會主義」 『經濟論叢』 8-1

38) 河上肇, 1919.3 「マルクスの社會主義の理論的體系」 『社會問題研究』 3

39) 河上肇, 1920 『近世經濟思想史論』, 岩波書店

의 경우는 사카이와는 달리 독어 원본을 저본으로 한 번역이었다.

그렇다면 사카이와 가와카미의 일역본의 차이는 무엇인가? <표 2>는 사카이와 가와카미의 번역본에 나타나는 주요한 개념의 번역어를 비교한 것이다.

<표 2> 사카이와 가와카미 일역본의 주요 개념 번역어 비교

	생산력	생산관계	상부구조	생산양식	경제적 사회구성
『매문집』	생산력	생산관계	상건축	생산방식	사회의 경제적 진화
『사회주의윤리학』	생산력	생산관계	상건축	생산방법	사회의 경제적 진화
『사회주의연구』1	생산력	생산관계	상부구조	생산방법	사회의 경제적 진화
『경제논총』8-1	생산력	생산관계	상건축	생산방법	사회의 경제적조직의 진보
『사회문제연구』3	생산력	생산관계	상층구조	생산방법	사회의 경제적조직의 진보
『유물사관연구』	생산력	생산관계	상층구조	생산방법	경제적 사회구성의 진보

출전: 『매문집』, 『사회주의윤리학』, 『사회주의연구』1, 『경제논총』8-1, 『사회문제연구』3, 『유물사관연구』

사카이와 가와카미의 번역본을 비교해보면 번역이 원문의 내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핵심개념의 번역어의 사용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경우는 양자 모두 ‘생산력’과 ‘생산관계’로 번역하고 있다. 또한 ‘생산양식’의 경우에는 모두 ‘생산방법’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상부구조’와 ‘경제적 사회구성체’의 경우는 상이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사카이는 ‘상부구조’를 처음에는 ‘상건축(上建築)’으로 번역했지만 1919년 4월 『사회주의연구』부터는 ‘상부구조’로 번역하고 있다. 이에 비해 가와카미는 처음에는 사카이와 같이 ‘상건축’이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1919년 3월 『사회문제연구』부터는 ‘상층구조(上層構造)’라고 번역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사회구

40) 河上肇, 1921 『唯物史觀研究』, 弘文堂書房

성’의 경우에도 사카이가 ‘사회의 경제적 진화’라는 번역을 고수하고 있는데 비해, 가와카미는 처음에는 ‘사회의 경제적 조직’으로 번역하다가 1921년 8월 발간된 『유물사관연구』부터는 ‘경제적 사회구성’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2) ‘유물사관요령기’의 번역과 ‘사회주의 필연성’의 강조

191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한 사회주의사상은 단지 맑스주의뿐만 아니라 아나키즘이나 길드 사회주의, 기독교사회주의, 페비안니즘 등과 같은 매우 다양한 조류들을 포괄하고 있는 복잡한 것이었다. 그러나 러시아혁명과 삼일운동을 거치면서 식민지 조선에서 사회주의운동의 지도이념은 다양한 사회주의사상 가운데 맑스주의가 점차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식민지 피압박 민족에 대한 소비에트 러시아와 코민테른의 지원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와 ‘겨울의 시대’를 극복하면서 발전한 일본 사회주의운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1920년대 초반은 맑스주의가 운동과 사상의 두 측면에서 식민지 조선 사회주의의 현실적 주류로 등장한 시기였다. 그러나 ‘해방운동의 무기’로 수용된 측면이 강했던 조선 맑스주의의 특성상 사회주의운동의 급속한 양적 팽창과 비교하여 맑스주의 자체에 대한 이론적 논구(論究)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이 현실이었다. 이러한 운동과 사상의 불균형을 타개하고 급속히 발전하는 사회주의운동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조선의 사회주의자들은 맑스주의 관련 논저들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소개하는 한편 이를 대중에게 선전하기 위해 맑스주의 관련 논저들에 대한 번역을 시도하기 시작하였다.

공개 출판물을 통해 다양한 맑스주의 관련 논저들의 번역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⁴¹⁾ 맑스주의 원전에 대한 번역과 소개는 활발하지 않았다.

1920년대를 통해 맑스주의 원전 가운데 식민지 조선에서 번역된 저작은 『공산당선언』, 『정치경제학비판을 위하여』 서문, 『임금 노동과 자본』, 『임금, 가격, 이윤』, 『유토피아에서 과학으로의 사회주의의 발전』, 『고타강령 초안 비판』, 「맑스가 쿠젤만에게 보낸 서신」, 『칼 맑스』 정도에 불과하였다.⁴²⁾ 이러한 번역 상황은 같은 시기 맑스주의 원전이 대부분 번역되고 『맑스-엥겔스전집』이 출간되고 있던 제국주의 일본의 상황은 물론이고,⁴³⁾ 반식민지 중국에서의 맑스주의 원전 번역 상황과 비교해도 극히 소략한 것이었다.⁴⁴⁾

이처럼 맑스주의 관련 논저들의 적극적인 번역이 부진했던 것은 조선이 일본 제국주의의 강력한 사상통제가 행해지고 있던 식민지였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중등 이상의 근대교육을 이수한 신지식층이 대부분이었던 이 시기 조선의 사회주의자들이 일본어를 독해할 수 있었다는 점도 크게 작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맑스주의 수용 과정에서 맑스주의 관련 논저를 번역 출판하여 대중에게 맑스주의를 적극적으로 선전, 보급하기 위한 일환으로 맑스주의 원전을 번역하여 출판하려는 활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극심한 ‘사상통제’가 자행되던 이 시기 식민지 조선에서 맑스주의 수용의 특징을 잘 보여 주는 것이 1921년의 『정치경제학비판을 위하여』 서문의

41) 이 시기 신문과 잡지를 중심으로 한 공개 출판물을 통해 출간된 리스트에 대해서는 유재천, 1990 『한국 언론과 이데올로기』, 文學과 知性社 참조.

42) 자세한 것은 박종민, 2007 「日帝下 社會主義思想의 受容에 關한 研究」,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참조.

43) 1920년대까지 일본에서의 맑스주의 원전 번역 상황은 內藤勉夫 編, 1930 『アルヒーフ』 3, 大原社會問題研究所 참조.

44) 중국에서의 맑스주의 원전 번역 상황은 中央中央馬克思恩格斯列寧斯大林著作編譯局馬恩室編, 1983 『馬克思恩格斯著作在中國的傳播』, 人民出版社, 「馬克思恩格斯著作中譯本(文)第一版書目」 참조.

번역이다. 맑스주의 원전 가운데 가장 먼저 번역되어 출판된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서문은 식민지 조선에서 공개적인 출판물의 형태로 발행된 최초의 맑스주의 원전 번역물이었다.

『정치경제학비판을 위하여』 서문의 한국어 번역본은 서문 전체를 완역한 것은 아니었다. 서문 가운데 “인간들은 자신들의 생활을 사회적으로 생산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의지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일정한 필연적 관계들, 즉 자신들의 물질적 생산력들의 일정한 발전 단계에 조응하는 생산 관계들에 들어선다”로 시작해서 “이 사회 구성체와 더불어 인간 사회의 전사(前史)는 끝을 맺는다⁴⁵⁾”로 마무리되는 서문의 유명한 일부만이 ‘유물사관요령기’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었다.

‘유물사관요령기’는 1921년 3월 윤자영의 번역으로 『유물사관요령기』라는 제목으로 『아성』 1호에 처음 게재되었다.⁴⁶⁾ 이는 ‘국내⁴⁷⁾에서 공간된 최초의 번역으로 ‘유물사관요령기’의 전문만을 완역한 것이었다. 그리고 같은 해 4월에는 신백우의 번역으로 『공제』 7호에 「유물사관개요」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다.⁴⁸⁾ 그러나 신백우의 번역은 무슨 이유에서 인지 “그러나 부르주아 사회의 태내에서 발전하는 생산력들은 동시에 이러한 적대의 해결을 위한 물질적 조건들을 창출한다. 이 사회 구성체와 더불어 인간 사회의 전사는 끝을 맺는다⁴⁹⁾”라는 ‘유물사관요령기’의 마지막 부분이 생략되어

45) 칼 맑스, 1992 「정치 경제학의 비판을 위하여」, 최인호 외 역,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2, 박종철출판사, 477~478쪽. 이하 맑스주의 원전의 현대어 번역은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에 수록된 경우 이를 따랐다.

46) 尹滋瑛, 1921.3 「唯物史觀要領記」 『我聲』 1

47) 국외의 경우 공간된 ‘유물사관요령기’의 번역은 상하이 『獨立新聞』에 孫斗煥이 4회에 걸쳐 발표한 「社會主義研究」(1920. 5.29- 6.10)라는 연재물에 포함되어 있다. ‘유물사관요령기’는 연재물의 3회분(1920. 6. 5)에 수록되어 있는데, 번역문을 확인해 보면 『社會問題研究』 3호에 실린 가와카미의 번역문을 중역한 것임을 알 수 있다.

48) 申伯雨, 1921.4 「唯物史觀概要」 『共濟』 7

있다. 그리고 ‘유물사관요령기’에 대한 해설이 함께 번역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들 번역문의 저본은 무엇인가? 두 글은 모두 명시적으로 번역의 출처를 밝히고 있지 않다. 그러나 두 글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유물사관을 설명하기 위해 ‘유물사관요령기’가 포함된 동일한 글을 축차적으로 번역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인물이 일본의 사회주의자 사카이 도시히코와 가와카미 하지메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윤자영과 신백우의 번역문이 『아성』과 『공제』에 게재된 1921년 4월까지 일본에서의 ‘유물사관요령기’에 대한 번역이 사카이와 가와카미 두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식민지 조선에서 윤자영과 신백우에 의해 번역된 두 가지 번역문의 ‘유물사관요령기’를 전술한 사카이와 가와카미의 일역문과 대조해 보면 모두 사카이의 번역문을 저본으로 충실하게 중역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그 저본은 사카이가 1919년 4월 종래의 번역문을 수정하여 『사회주의연구』에 수록한 글인 「유물사관개요」이다.⁵⁰⁾ 따라서 사카이와 가와카미 번역본의 차이였던 ‘상부구조’와 ‘경제적 사회구성’을 사카이의 번역에 따라 ‘상부구조’와 ‘사회의 경제적 진화’로 번역하고 있다.

49) 칼 맑스, 1992 「정치 경제학의 비판을 위하여」, 최인호 외 역,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2, 박종철출판사, 478쪽

50) 사카이의 「유물사관개요」는 ‘유물사관요령기’와 그에 대한 해설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사카이가 번역한 것이다. 사카이가 「유물사관개요」의 말미에 Louis Boudin의 저서인 *The Theoretical System of Karl Marx*에 의거한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1919.4 「唯物史觀概要」, 『社會主義研究』 1, 19쪽). 사카이가 거론한 이 책은 1907년 출간된 *The Theoretical System of Karl Marx in the Light of Recent Criticism*이며, 1921년 아카카와에 의해 『マルクス主義体系』라는 제목으로 일역된다. 신백우의 ‘유물사관요령기’와 그에 대한 해설은 결국 사카이가 정리한 Louis Boudin의 글을 중역한 것이다. 이 글은 중국에서도 1919년 7월 「馬氏唯物史觀概要」라는 제목으로 『晨報副刊』에 번역 게재되었다.

‘유물사관요령기’의 번역자인 윤자영과 신백우는 전술한 바와 같이 각각 공산주의 그룹인 사회혁명당과 ‘조선공산당’의 주요 이론가였다. 사회혁명당과 ‘조선공산당’ 등 공산주의 그룹은 독서와 토론을 통해 새로운 이론인 맑스주의를 학습하고 연구했고,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카이의 번역을 매개로 맑스주의의 개념을 이해하고 발전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유물사관요령기’의 번역은 이들의 개인적인 작업이라기보다는 이 시기 공산주의 그룹들의 맑스주의에 대한 연구와 선전 활동에 대한 관심의 결과가 가시화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왜 두 가지 일역본 가운데 사카이의 일역본을 저본으로 선택했는가? ‘유물사관요령기’의 번역이 단순한 내용의 소개라기 보다는 맑스주의의 선전이라는 공산주의 그룹의 목적의식적 행위였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사카이와 가와카미가 당대 일본 사회주의운동과 사상계에서 어떠한 위상과 성향을 갖고 있었는가 하는 문제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 시기 가와카미는 교토제국대학의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맑스주의와 관련하여 유물사관을 단순한 경제학설로 통속화시켜 해석만 셀리그만의 이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⁵¹⁾ 이에 비해 사카이는 일본 사회주의운동의 여명기부터 헤이민사(平民社)와 일본사회당 등에서 지도적 역할을 담당한 인물이었고, 이 시기에도 일본사회주의동맹을 지도하는 등 일본 사회주의운동의 대표적인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었다.⁵²⁾ 또한 사카이는 일본 사회주의자들 가운데서도 맑스주의, 특히 유물

51) 河上肇는 1903년 출간된 Edwin Seligman의 저서 *The Economic Interpretation of History* 를 1905년 昌平堂·川岡書店에서 『歴史之經濟的說明 新史觀』이란 제목으로 간행하였다. 『歴史之經濟的說明 新史觀』의 제일 앞에는 河上肇와 Seligman의 관계를 보여 주는 Seligman의 친서와 서명이 수록되어 있다. 이 시기 河上肇의 맑스주의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는 홍성찬, 1996 「한국 근현대 이순탁의 정치사상연구」 『역사문제연구』 1 참조. 河上肇에 대해서는 ① 大内兵衛, 1966 『河上肇』, 筑摩書房 ② 小林漢二, 1994 『河上肇』, 法律文化社 참조.

사관 연구와 관련하여 권위를 인정받고 있던 인물이었다.⁵³⁾ 따라서 일본 사회주의운동의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며 교류하고 있던 조선의 사회주의자들로서는 사카이의 일역본을 저본으로 선택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렇다면 왜 맑스주의 원전 가운데 유독 ‘유물사관요령기’만이 여러 차례 번역되어 여러 매체를 통해 집중적으로 소개되고 있는가?⁵⁴⁾ 그것은 맑스주의를 수용했던 이 시기 사회주의자들의 문제의식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시아적, 고대적, 봉건적, 그리고 현대 부르주아적 생산 양식들을 경제적 사회 구성체의 순차적인 시기들이라고 할 수 있다. 부르주아적 생산관계들은 사회적 생산 과정의 마지막 적대적 형태인데(강조는 인용자), 여기서 적대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개인적 적대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개인들의 사회적 생활 조건들로부터 싹터 온 적대라는 의미에서이다. 그러나 부르주아 사회의 태내에서 발전하는 생산력들은 동시에 이러한 적대의 해결을 위한 물질적 조건들을 창출한다. 이 사회 구성체와 더불어 인간 사회의 前史는 끝을 맺는다(강조는 인용자).⁵⁵⁾

52) 堺利彦은 1922년 7월 15일 조직된 일본공산당의 대표자이기도 했다. 堺利彦에 대해서는 林尙男, 1987 『評傳『堺利彦』』, オリジン 참조.

53) 堺利彦의 唯物史觀研究에 대해서는 川口武彦, 1983 『日本マルクス主義の源流; 堺利彦と山川均』, ありえず書房, 제1편 참조.

54) 『唯物史觀要領記』는 1922년 12월에는 侍天教의 잡지인 『今至』에도 번역되어 게재되었다. 또한 1924년 1월 9일부터 11일까지 3회에 걸쳐 日唐의 번역으로 『朝鮮日報』에 『唯物史觀要領記』란 제목으로 연재되었다. 이는 堺利彦이 1922년 7월 建設者同盟出版部에서 발행한 『社會主義學說の大要』의 제 2장 3절인 『唯物史觀の要領』을 완역한 것이다. 『社會主義學說の大要』의 ‘유물사관요령기’에 대한 번역은 전술한 바와 같이 『社會主義研究』에 실린 번역문을 전재한 것이다. 『社會主義學說の大要』의 내용과 국내 번역에 대한 자세한 것은 박종린, 2007 『日帝下 社會主義思想の受容에 關한 研究』,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3장 3절 참조.

55) 칼 맑스, 1992 「정치 경제학의 비판을 위하여」, 최인호 외 역, 『칼 맑스 프리드리

라는 ‘유물사관요령기’의 언급은 맑스주의를 해방을 위한 무기로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한 식민지 조선의 사회주의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것이었다. 즉 이들이 ‘유물사관요령기’를 역사는 발전하는 것이며, 그 진행은 사회구성체의 계기적 발전에 의해 결국 인류의 전사(前史)인 자본주의가 극복되고 사회주의가 필연적으로 도래하는 것으로 독해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물사관요령기’의 정식화에 기반하여 식민지 조선의 사회주의자들은 당대 조선 사회를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적 생산과정의 마지막 적대적 형태”인 자본주의사회로 규정하였다.⁵⁶⁾ 따라서 제국주의 일본도 필연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였다.

조선의 사회주의자들에게 이러한 ‘유물사관요령기’는 식민지 조선에서 제국주의 일본을 구축(驅逐)하는 민족해방과 사회주의 건설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인식된 것이다. 바로 이것이 윤자영과 신백우가 『정치경제학비판을 위하여』 서문의 ‘유물사관요령기’를 번역한 이유인 것이다.

이처럼 이 시기 조선의 사회주의들이 『정치경제학비판을 위하여』 서문의 ‘유물사관요령기’ 번역을 통해 강조하고 선전하려했던 것은 바로 ‘사회주의사회의 필연성’ 문제였다. 그리고 그것은 다윈의 “유기적 자연의 발전 법칙” 발견과 비견되는 “인간 역사의 발전 법칙”⁵⁷⁾을 발견한 맑스의 유물사관에 근거한 것으로 당대 사회주의자들에게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공식(公式)’⁵⁸⁾으로 인식되었다.

히 엔겔스 저작 선집』 2, 박종철출판사, 478쪽

56) 金明植, 1920.9 「勞動問題は社會의 根本問題이라」 『共濟』 1 ; 俞鎮熙, 1920.10 「勞動運動의 社會主義的 考察」 『共濟』 2 ; 一記者, 1921.6 「勞動問題通俗講話」 『共濟』 8 참조.

57) 프리드리히 엔겔스, 1994 「칼 맑스의 장례」, 최인호 외 역,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엔겔스 저작 선집』 5, 박종철출판사, 507쪽

현재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붕괴하고 사회주의가 필연적으로 도래한다는, 즉 사회주의의 필연적인 도래를 강조하는 ‘유물사관요령기’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1920년대 초 조선의 사회주의자들이 맑스주의를 수용하고 선전하는데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맺음말

1920년대 초는 다양한 사회주의사상이 수용되는 가운데 민족해방운동과 관련하여 맑스주의가 급격히 주류적인 위치로 자리하는 시기였다. 즉 맑스주의가 ‘운동과 사상’의 두 측면에서 조선 사회주의의 현실적 주류로 등장한 것이다. 공산주의 그룹의 지도 아래 급속한 양적 팽창을 이룬 사회주의 운동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조선의 사회주의자들은 맑스주의 관련 논저들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소개하였다.

그런 가운데 맑스주의 원전에 대한 번역이 시도되었고,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번역되어 공개적인 출판물의 형태로 발행된 것이 『정치경제학비판을 위하여』 서문의 ‘유물사관요령기’였다. ‘유물사관요령기’는 1921년 3월과 4월 각각 사회혁명당의 윤자영과 ‘조선공산당’의 신백우에 의해 번역되었는데, 모두 사카이의 번역문을 저본으로 한 중역이다.

맑스주의 원전 가운데 이 시기 ‘유물사관요령기’만이 여러 차례 번역되어 여러 매체에 집중적으로 소개되었다. 그것은 조선의 사회주의자들이 ‘유물사관요령기’를 통해 역사는 발전하는 것이며, 그 진행은 자본주의가 극복되고 사회주의가 필연적으로 도래하는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당대 조선은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지배되는 자본주의사회이며,

58) 河上肇, 1921 『唯物史觀研究』, 弘文堂書房, 1쪽

제국주의 일본도 필연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한 공산주의 그룹은 1922년 이후 부르주아 민족주의 세력과 민족해방운동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경쟁하는 일면, 사회주의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공산주의 그룹들 상호간에 대립을 전개하였다. 1922년 김윤식사회장(金允植社會葬)과 1923년 물산장려운동의 과정에서 가시화된 이들 공산주의 그룹들 사이의 대립은 사회주의사상이 맑스주의로 전일화된 이후 맑스주의에 대한 상이한 인식 차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투고일 : 2008. 2. 25 심사완료일 : 2008. 3. 5

주제어 : 공산주의 그룹, 맑스주의, 유물사관요령기, 사회주의 필연성, 사카이 도시히코

<Abstract>

‘The handbook of historical materialism’ and introduction of
Marxism among the communist groups during the early period
of 1920s

Park, Jong-rin

On the first half of 1920, Marxism was risen up on the main stage of the Korea socialism in both aspects of ‘movement’ and ‘thought’. In order to backing up the rapid and quantitative expansion of the socialist movement, the Marxists in Korea had strenuously studied and introduced many main works of Marxism. They had attempted the translation of the original texts of Marx and Engel. The first translated and published text was ‘The Handbook of Historical Materialism’ in the preface of *For the Political and Economic Critic*.

On March and April in 1921, ‘The Handbook of Historical Materialism’ was translated by Yun Ja Young and Shin Pack Woo, but this was the retranslation on the base of the Sakai Toshihiko translation version. Only this Original was again and again translated and intensively introduced through many different media. The result was that the socialists in Korea had come to know that history is progressive, it necessarily proceeds from capitalism to socialism, and that Korea was a capitalist society under the imperial Japan, but Japan should be inevitably broken down according to this historical law.

Key Words : Communist Groups, Marxism, the Handbook of Historical Materialism,
the inevitability of Socialism, Sakai Toshihiko